

한국 축구를 지키는 승리의 상징 '치우천왕'

글 | 이종호 _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2002년에 한국이 이루었던 4강 신화를 또 다시 이룰 수 있겠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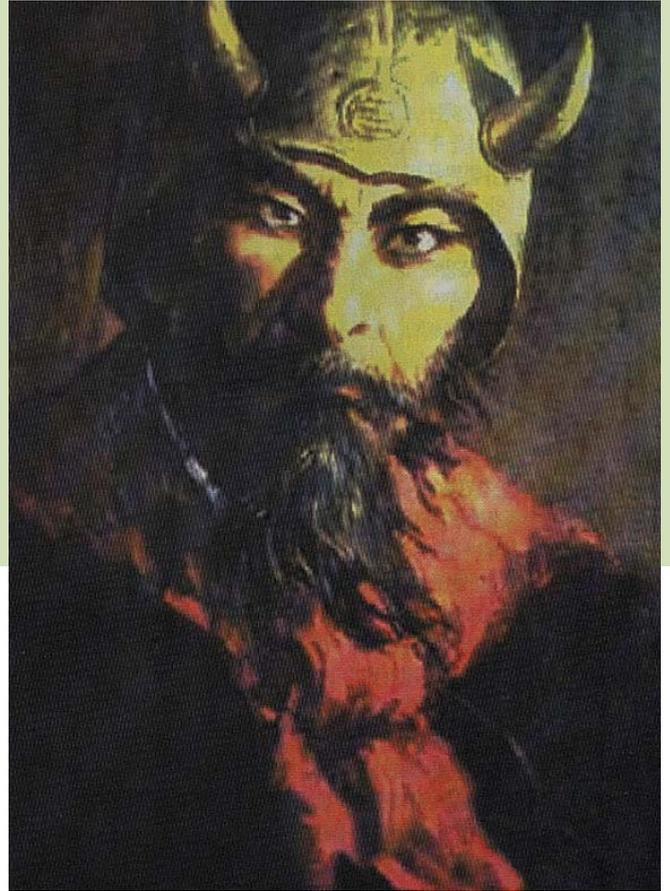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전만 해도 한국의 꿈은 아주 소박했다. 월드컵에서 16강이 겨루는 본선에 한번 진출해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1승이라도 거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히딩크 사단은 전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일궈냈다. 소박한 1승에서 한발한발 더 나아가 4강까지 진출했던 것이다.

세계인들로 하여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등장이다. 2002년 6월 25일, 독일과의 준결승전 당시 광화문과 시청에는 무려 140만 명이 몰렸고 서울 시민의 1/4인 250여만 명이 거리 응원에 나섰다. 그들은 '붉은 악마' 유니폼과 호각, 태극기로 온 천지를 도배했다. 어른이고 아이고, 젊은이고 노인이고, 회사원이고 학생이고 누구라 할 것 없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모두 붉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구호에 따라 같은 목소리로 합창했다. 당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450여 곳에 무려 8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는 4천700만 국민 중 거의 17%나 되는 숫자이다.

그런데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치우천왕(蚩尤天王)'을 내세운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당시까지도 치우천왕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09년간 불패신화 가진 배달국 14대 천왕

붉은 악마 응원단이 처음 치우를 잘못 알고 악마로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지만 붉은 악마가 치우천왕을 내세운 것은 치우가 환인이 다스리던 환국의 뒤를 이어 환웅천왕이 건국한 배달국의 14대 천왕이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치우천왕은 한국인의 선조



치우천왕(그림 김산호)

로 알려진 동이족이며 그의 근거지가 고대 고조선의 영토이므로 그를 내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조였다. 한편, 중국측에서는 치우가 공손 현원과 전쟁을 벌인 사실을 '동이전'이 아닌 '흉노전'에 기록하고 있다.

치우천왕(일명 자우지 환웅)은 기원전 2707년부터 2598년까지 109년간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패의 신화를 가진 고대 조선의 군신으로 '천하용사지주(天下戎士之主)'란 명성을 갖고 있다. 치우천왕은 중국의 전설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 제1편>에 나온다.

'황제는 유능국의 임금 소전의 아들이다. 성은 공손(公孫)이고 이름은 현원(軒轅)이다. 현원은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고 백일이 못 되어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재지(才智)가 번뜩였다. 자라면서는 돈후·민첩했고 성장해서는 총명했다.

(중략) 제후들은 모두 현원에게 복종했는데 오직 치우만이 난폭해서 현원도 징벌할 수 없었다. (중략) 그러나 치우가 천하를 어지럽혀 황제의 명을 듣지 않았으므로 황제는 군사를 제후에게서 징집해 치우와 탁록의 야(野), 현재의 河北省)에서 싸워 드디어 치우를 잡아 죽였다.'

사마천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주(註)를 적었다.

① 응소가 말하기를, 蚩尤, 古天子(치우는 옛 천자이다)

② 관자가 말하기를, 蚩尤受廬山之金 而作五兵 明非庶人(치우가 노산의 금으로 오병을 만들었으니 분명히 사람은 아니다)

③ 용어하도가 말하기를, 黃帝攝政 有蚩尤兄弟八十一人 竝獸身人語 銅頭鐵額 食沙石子 組立兵仗刀戟大弓 威振天下(황제(현원)가 섭정할 때 치우의 형제가 81명 있었으며 짐승의 몸으로 말을 하고 구리머리에 쇠 이마를 했으며 모래를 먹고 칼, 창, 커다란 활 등의 무기를 만들어 위엄이 천하에 떨쳤다)

④ 공안국이 말하기를, 句黎君號蚩尤(구려의 임금을 치우라 불렀다)

⑤ 황람이 말하기를, 蚩尤塚在東平郡壽張縣(치우의 무덤이 동평군 수장현에 있다)

그런데 황제와 치우가 전투를 벌인 탁록은 지금의 베이징 근방이므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중원은 한족(漢族)의 땅이 아니라 동이족의 땅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사마천은 오제(황제 · 전욱 · 제곡 · 요 · 순) 앞에 있다고 알려진 '삼황(三皇)'을 신화로 보고 오제 때부터 역사시대로 들어갔다고 보았다. 우리 나라 상고사와 대비해 보면 환웅시대는 중국의 삼황과 오제의 양 시대에 걸쳐있고, 단군의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시청 앞의 붉은악마

기준할 경우 단군시대 역시 오제시대 끝자락인 요 · 순시대와 같은 시기이다. 즉 치우천왕은 중국의 황제와 동시대 인물이고 우리의 단군은 요 · 순과 동시대 인물인 것이다.

치우천왕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여하튼 중국의 정사로 인정되는 사마천의 기록에 설명된 치우천왕을 박선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우선 치우가 각종 병장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측 기록에 의하면 치우는 벽토지(鬲土地), 흥산(興産), 작병(作兵), 연병(鍊兵)과 뛰어난 송생중물(崇生衆物)의 치세이념을 구현했다. 벽토지란 산과 계곡을 뚫어 길을 냈음을 말하며, 흥산이란 산업을 진흥시켰다는 것이다. '사기'에는 노산 등지의 광물을 뽑아 제련사업을 일으켰다고 적었는데, 이 때 치우는 구야(九冶)라는 일종의 기술부대를 운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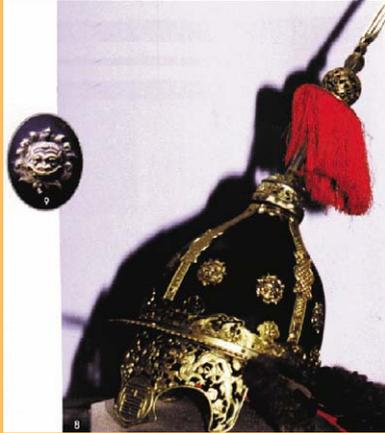
연병이란 강력한 군대를 양성했으며, 송생중물이란 살아있는 생명체와 모든 물상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고대 사회에서 야금, 즉 금속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데 철(鐵)의 옛글자가 금(金)과 이(夷)를 합친 글자였음에 비추어 금속의 생산기술이 동이족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사마천은 치우천왕이 마치 악당인 것처럼 기술하고 반대로 황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요 중국의 통치자인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사마천의 기록을 엄밀하게 해석한다면 치우는 황제, 즉 현원보다 먼저 천하를 다스리던 천왕이었다. 그러므로 치우가 반역자가 아니고 현원이 반역자인 셈이다. 또한 중국의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는 '산해경'에도 현원이 치우천왕에 대한 반역자로 기술되어 있다.

'치우가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토벌했다. 이에 황제는 치우를 기주의 들에서 공격했다. 치우는 풍백과 우사를 불러 크게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퍼붓게 하였다. 이에 황제는 천녀를 불러 비를 멈추게 하고 마침내 치우를 살해했다.'

중국에서는 한족과 이민족간의 최초의 전쟁을 바로 현원과 치우간의 탁록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한다. 현원은 한족의 수장이며 치우는 구려(句黎), 즉 묘족(苗族)의 수장이다(박성수 교수의 황제와 치우 모두 동이족이라고 설명함).

현원과 치우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대결, 70여 회나 전투를 했



육사박물관에 소장중인 투구상에 새겨진 치우상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공식 서포터 클럽의 엠블럼

는데 한국측 자료인 '삼성기전 하편'에는 치우가 탁록의 벌판에서 현원을 격파하고 신하로 삼았다고 적혀있다. '한단고기'와 '구원사화'에서도 치우와 황제가 싸워 이 싸움에서 치우가 이겨 먼저 제위에 올랐다고 적었다. 또한 '한단고기'에서는 배달나라(환웅시대) 영토를 중국의 산둥반도 이남에 있는 희대 땅까지 넓혔다고 기록했다.

한편 치우가 현원에게 살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치우의 형제 81인이 쇠 이마로 된 똑같은 복식을 했기 때문에, 치우를 살해했다고 기록한 것은 81명 중의 한 장수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설명도 있다.

사악한 기운 쫓고 강렬한 투쟁정신 북돋워

중국에서는 그 동안 황제만 시조로 모시다가 1980년대부터 염제(炎帝)를 포함해 중국인은 염·황(炎黃)의 자손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더니 1990년대에 와서는 탁록현 반산진의 황제성과 황제전이 인접한 평원에 있는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을 건립하면서부터 황제·염제·치우제의 삼시조시대(三始祖時代)를 선전하고 있다.

치우천왕의 능은 1997년, 중국 산둥성의 문상현 남왕진에서 발견되었다. 탁록현의 탐사촌에도 치우릉이 있는데 이곳에는 치우의 머리 부분이 묻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기집해'와 '한서'에는 "치우의 무덤은 동평군 수장현 감행성에 있으며 높이는 일곱 길(70자)이고, 백성들이 매년 음력 10월에 제사를 지낸다. (중략) 팔다리 무덤은 산양군 거야현에 있다"고 적었다.

강원대학교의 박정학 교수는 치우가 중국의 조상이라면 그가 다

스린 '구려'와 그 후신인 고구려는 자연스럽게 중국 역사에 편입되고, 치우의 영역과 범통을 이어받은 고조선 역사마저 중국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박정학 교수는 치우를 한(漢)족의 시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중화족' 속에 포함된 동이와 묘족의 조상인 것은 분명하므로 치우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중국인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치우가 중국인들의 본류라는 현원과 전쟁을 한 동이족

의 시조라 하더라도 시기가 기원전 2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가 치우를 진시황제 이후에 나오는 동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다는 의견과도 일견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여하튼 우리 나라에서 치우천왕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때문이기는 하지만 치우에 대한 믿음은 생각보다 깊어 뿌리내려 있었다는 설명도 있다. 우선 한강의 '독섬'의 경우, 본래 치우 사당을 모셨기 때문에 '치우기(旗)를 뜻하는 '독(소 꼬리나 꿩 꼬리로 꾸민 깃발을 의미)자를 써서 '독도', 즉 '독섬'이라고 불렀던 것이 경음화해 '독섬'으로 변했다고 설명한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8세기경의 녹유귀면와(綠油鬼面瓦)도 치우상으로 추정한다. 일부학자들은 장승도 치우상이 변형된 것이 있다고 하며, 치우부적, 도깨비, 치우투구, 치우깃발, 기우제신 등을 모두 치우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도깨비는 중국과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의 도깨비만이 소뿔이나 자신감에 넘치는 치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설명도 있다.

육군사관학교에 보관된 옛날 투구에도 치우상이 그려져 있는데 전투에 출전하기 전에 치우를 군신으로 모셨던 치우사당에서 먼저 승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데서 연원한다고 한다.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치우천왕을 그려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치우천왕은 그 자체로 승리를 상징하는 인물인데다 사악한 기운을 쫓고 강렬한 투쟁 정신을 북돋우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붉은 악마 응원단에서 그를 한국 축구의 승리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계속)